

14_2_한국어_高峰遺跡

다카미네 유적

이 유적은, 야요이 시대의 수혈 건물과 고분 시대의 고분 2기로 구성된 유적입니다.

야요이 시대의 수혈 건물은 전망이 좋은 장소에 있고, 방어용의 환호가 주위를 둘러 싸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사적 긴장이 존재했던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거대한 숫돌이나 미완성의 화살촉이 발견되었습니다.

1 호 고분은, 전방후원분으로 총길이 45 미터이고, 땅밀림에 의해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토용이나 이음돌을 갖춘 고분 시대 중기의 것입니다. 2 호 고분은 지름 18 미터, 높이 3 미터의 원분입니다. 유력자의 묘로 생각됩니다.